

# 주간 통일정세

2017-03

## Contents

###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정세

## ■ 개요

분류	일자	
정치	1.14	北, ICBM 개발 시뮬거리 못돼...美 사고방식 바뀌야(연합뉴스)
		北매체, ICBM 시험발사 머지않아 진행...정치적 흥정물 아냐(연합뉴스)
	1.15	北김정은, 이번엔 첫갈공장·수산사업소 시찰(연합뉴스)
		北 김정은 새해초 軍 시찰 안해...집권 후 두번째(연합뉴스)
		北최룡해, 니카라과서 중남미 좌파지도자 만난뒤 쿠바行(연합뉴스)
		방중 닷새째 北최희철 부상, 中대신 동남아 주중 대사들만 만나(연합뉴스)
		北, 안보리 제재받은 박춘일 前이집트대사 후임자 임명(연합뉴스)
		北매체, 위성 발사 중단없이 계속될 것(연합뉴스)
	1.16	北, 김정은 공개활동 확보집 발간...‘애민’ 면모 강조(연합뉴스)
		김정은 완공 독려 여명거리 주택 90% 완료...北신문(연합뉴스)
	1.17	태영호, 한국은 北외교관 많아...전세계서 기다리는 분들 있어(연합뉴스)
		北, 내각 부총리에 전광호 임명(연합뉴스)
		北 “병진노선은 진리...도전하면 망해” 핵개발 고수 의지(연합뉴스)
		北매체 “김정은, 인민의 아들”...‘몸뚱추기’ 계속하나(연합뉴스)
		北매체 “美 이중잣대 거부”...ICBM 시험발사 위협(연합뉴스)
	1.18	北김정은, 또 절뚝이는 모습 포착...발목 이상 재발했나(연합뉴스)
		北 조직지도부, 작년 말 보위성 전격 검열(연합뉴스)
		北, 김정은 우상화 가속...업적찬양 해외토론회도 개최(연합뉴스)
北 “AI 방역 강화” 선전...발병 실태는 ‘침묵’(연합뉴스)		
1.19	‘공장’만 가던 北김정은, 새해 첫 군부대 시찰(연합뉴스)	
	인사성 밝아진 北 김정은...정부, 통치술의 일환(연합뉴스)	
1.20	北김정은, 함경북도 수해민 지원 근로자에 감사(연합뉴스)	
	北신문, 트럼프 취임일 맞아 ‘ICBM 발사’ 또 위협(연합뉴스)	
경제	1.18	北 지하자원 헐값에 팔린다...가공산업 경쟁력 미비 탓(연합뉴스)
	1.20	中, 북중경협 상징 황금평 경제특구 접나...진입로 없애(연합뉴스) 북·중, 수산물 가공교역 ‘활발’...제재 틈새 뚫기(연합뉴스)
사회 문화	1.15	北, 탈북자 은신처 없애려 함경북도 수해 마을 고의 방치(연합뉴스)
	1.16	北, 학생들에 학교 컴퓨터 구매비용 상납 강요(연합뉴스)

		北, 김정은 신년사 자아비판에 “주민들 자책의 눈물”(연합뉴스)
		북한 의사들 가장 선호하는 직장은 정신병원(연합뉴스)
	1.18	北, 외교사절에 “공사장·사고현장 찍지 말라” 통보(연합뉴스)
	1.19	北세관 경비대 신병, 소대원 7명 사살…구타 불만(연합뉴스)
	1.20	北 90년대 너무 굶어 징병차질…병역기피 단속강화(연합뉴스)
외교 국방	1.16	평양, 스웨덴식으로 설계?...北, 스웨덴대에 건축교육 협력 제안(연합뉴스)
	1.18	美의회, 연초부터 ‘北테러지원국’ 재지정 압박 고삐…법안 발의(연합뉴스)
		로스 美NSC 부보좌관, 北문제 해결위한 진정한 압력은 내부에서(연합뉴스)
		美백악관 “북한 핵·미사일 문제, 트럼프 레이더 화면에 있다”(연합뉴스)
		中, 자국 기업에 ‘맹목적 북한진출 주의’ 경고(연합뉴스)
	1.19	유엔美대사 내정자, 대북압박 고삐 늦출수 없어…제재이행 중요(연합뉴스)
		北, 美 케리 다보스포럼 간담회 발언 비난…패배자의 낯두리(연합뉴스)
		캄보디아, ‘우방’ 北에 쓴소리…“핵반대 안보리 결의 존중” 촉구(연합뉴스)
		北,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2기 제작…시험발사 빨라질 듯(연합뉴스)
		38노스, 북한 영변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 재가동 조짐(연합뉴스)
	1.20	美, 90년대에 이미 “北, 제재해도 핵포기 안해” 결론(연합뉴스)
		미국방부, 北미사일 美·동맹 위협시 격추 입장 재확인(연합뉴스)
EU 집행위 “북한, 이란 등 10개국 돈세탁·테러자금지원 위험국”(연합뉴스)		

■ 김정은 공개활동 동향

보도 일자	보 도 내 용	수 행 자	비 고
1.15.	새로 건설된 금산포젯갈기공공장과 금산포수산사업소 방 문	황병서, 서홍찬, 김용 수, 조용원, 마원춘	
1.19.	조선인민군 제233군부대 직속 구분대 공개활동	황병서, 리영길	

## ■ 주간 동향

### 1. 정치

#### 가. 김정은 동향

2017. 1. 15.

##### ■ 北김정은, 이번엔 젓갈공장·수산사업소 시찰(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황해남도의 금산포젓갈가공공장과 금산포수산사업소를 연이어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함.
- 김정은은 우선 금산포지구 능금도에 위치한 젓갈가공공장을 찾아 시설을 둘러보면서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자체의 힘으로 젓갈을 공업적인 방법으로 생산할 수 있는 우리 식의 기술공정을 확립하는 혁신적인 성과를 이뤘다”고 치하함.
- 이날 시찰은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서홍찬 인민무력성 제1부상, 김용수 당 중앙위원회 부장, 조용원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마원춘 국무위원회 설계국장 등이 수행함.

##### ■ 北 김정은 새해초 軍 시찰 안해...집권 후 두번째(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새해 초 공개활동을 모두 ‘민생경제’로 택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림.
- 김정은은 새해 첫 공개활동으로 지난 5일(보도일 기준) 평양가방공장을 시찰한 데 이어 8일 김정숙평양제사공장, 12일 류경김치공장, 15일 금산포젓갈가공공장과 금산포수산사업소를 잇달아 방문하면서 ‘애민’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는데 주력함.
- 통일부 당국자는 “김정은이 새해 초 군 시찰에 나서지 않은 것은 신년사 관철에 집중하겠다는 차원으로 보인다”면서도 “현재 동계훈련 기간인 북한에서 김정은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군부대를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함.

2017. 1. 18.

##### ■ 北김정은, 또 절뚝이는 모습 포착...발목 이상 재발했나(연합뉴스)

- 올해 33살로 추정되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또 절뚝거리며 걷는 모습이 18일 포착됨.
- 북한 조선중앙TV가 17일 공개한 김정은의 지난달 강원도 ‘12월6일소년단야영소’

와 원산구두공장, 원산군민발전소의 시찰 장면을 담은 기록영화에는 김정은이 부자연스럽게 걷는 모습이 나옴.

- 이에 따라 김정은의 발목 이상이 최근 재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옴. 3년 전에도 김정은의 고도비만과 지나친 흡연으로 수술해도 재발 가능성이 크다고 국정원은 밝혔었음.

2017. 1. 19.

#### ■ ‘공장’만 가던 北김정은, 새해 첫 군부대 시찰(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새해 들어 처음으로 군부대를 시찰함. 김정은의 군부대 방문은 최근 북한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2기가 포착되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233 군부대 직속 구분대(대대나 그 아래의 부대 조직 단위)를 시찰하시었다”며 중대의 싸움준비와 훈련실태를 점검했다고 보도함.
- 김정은의 이날 시찰에는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육군 상장)이 동행함.

#### ■ 인사성 밝아진 北 김정은…정부, 통치술의 일환(연합뉴스)

- 통일부는 최근 북한 기록영화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주민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장면이 포착된 것과 관련해 “스타일 변화는 통치술의 일환”이라고 19일 평가함.
-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김정은이 노동자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등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스타일의 변화를 가져온 것인데 스타일의 변화는 통치술의 일환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저 사람(김정은)이 바라는 것이 애민(愛民)인지에 관심을 둔다면, 스타일의 차이를 가지고 그것을 짚어보기는 어렵다”고 밝힘.
- 지난해 김정은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200일 전투’의 성과 부진 등으로 스타일의 변화를 꾀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이 당국자는 분석함.

2017. 1. 20.

#### ■ 北김정은, 함경북도 수해민 지원 근로자에 감사(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함경북도 수해 지역 주민들을 지원한 간부와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표시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0일 보도함.
- 중앙방송은 “(김정은이) 피해 지역 인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중앙재관소 산하 단위 총재 김경일 외 55명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고 밝힘.
- 김정은은 함경북도 수해 복구 과정에 공로가 있는 근로자와 기관 등에 지난 10월 이후 수차례 감사 표시를 한 바 있음.

##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7. 1. 15.

### ■ 北최룡해, 니카라과서 중남미 좌파지도자 만난뒤 쿠바行(연합뉴스)

-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특사 자격’으로 니카라과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 중남미 좌파 국가 지도자들과 잇달아 만난 뒤 쿠바를 방문했다고 북한 매체가 14일 보도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최룡해가 지난 10일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과 미겔 마리오 디아스-카넬 베르무데스 쿠바 국가평의회 수석부의장,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을 만났다고 전함.
- 북한이 최근 사실상의 ‘정권 2인자’로서 위상을 드러내고 있는 최룡해를 앞서워 이들 국가들과 관계 다지기에 힘쓰는 것은 국제 제재에 따른 외교적 고립을 탈피할 목적으로 분석됨.

2017. 1. 16.

### ■ 北최룡해, 니카라과 대통령 취임식 참석하고 귀국(연합뉴스)

-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니카라과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뒤 16일 귀국했다고 북한 조선중앙TV가 보도함.
- 중앙TV는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특사로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최룡해 동지가 니카라과(니카라과)공화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가하고 16일 귀국했다”고 전함.
- 김기남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리길성 외무성 부상, 헤수스 델 로스 안헬레스 아이세 소틀롱고 북한 주재 쿠바 대사가 평양국제공항에서 최룡해를 맞이함.

■ **방중 닷새째 北최희철 부상, 中대신 동남아 주중 대사들만 만나(연합뉴스)**

- 지난 12일 중국을 방문한 최희철 북한 외무성 부상의 행적이 드러나지 않아 관심을 끌고 있음.
- 차관급의 북한 고위관리가 방중하면 여러 채널을 통한 북중 접촉이 이뤄지는데 비해 최 부상의 동선이 나흘 이상 드러나지 않아서임.
- 한 소식통은 “지난해 3개국 방문에서도 각국이 북한 주장에 싸늘한 반응을 보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중국 방문에서도 북한을 지지하는 동남아 국가들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의 빈손 귀국 가능성을 점침.

■ **北, 안보리 제재받은 박춘일 前이집트대사 후임자 임명(연합뉴스)**

- 북한이 불법 무기거래에 연루된 혐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대상에 오른 박춘일 전 이집트 주재 북한 대사의 후임자를 임명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하면 이집트 주재 조선 특명전권대사로 마동희가 임명되었다”고 짧게 보도함.
- 박춘일 전 대사는 안보리가 지난해 11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321호를 통해 여행금지 및 자산동결 제재 대상에 올랐음.

2017. 1. 17.

■ **태영호, 한국은 北외교관 많아·전세계서 기다리는 분들 있어(연합뉴스)**

- 태영호 전 주(駐) 영국 북한 공사는 17일 “최근에 (한국에) 온 북한 외교관이 상당히 많다”고 밝힘. 태 전 공사는 이날 바른정당 초청 간담회에서 “앞으로 더 좋은 삶을 찾아서 오는 엘리트층 탈북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함.
- 태 전 공사는 “지금 북한 고위 탈북자 중 저만 언론에 공개됐고 저 말고는 공개되지 않았다”며 “한국 언론은 모르지만 북한 외교관은 다 안다. 소문이 나고 북한이 알려 준다”고 말함.
- 그러나 태 전 공사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유럽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오보”라며 “유럽이 아니라 전세계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맞다”고 해명함.

■ **北, 내각 부총리에 전광호 임명(연합뉴스)**

- 북한이 17일 내각 부총리에 전광호를 임명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북한)에서 전광호 동지를 내각 부총리로 임명하였다”며 “이와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17일 발표되

였다”고 짚막하게 전함. 통신은 그러나 새로 임명된 전광호의 이력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함.

- 북한의 내각 부총리는 로두철과 리무영, 김덕훈, 임철용, 리주오, 리룡남, 고인호 등 7명임. 이들이 모두 건재하다면 부총리는 전광호를 포함해 8명으로 늘어남.

#### 다. 공식행사

##### ■ 특이사항 없음

#### 라. 주요 기관 행위

2017. 1. 16.

##### ■ 北, 김정은 공개활동 화보집 발간…‘애민’ 면모 강조(연합뉴스)

-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집권 후 각종 공개활동 모습을 담은 ‘화첩’(화보집)을 지난해 발간한 것으로 16일 확인됨.
-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웹사이트는 최근 화보 코너에 ‘인민을 위한 위대한 하늘’이라는 제목의 김정은 화첩을 pdf 파일 형식으로 게재함.
- 북한이 김정은 집권 이후 그의 활동만을 다룬 화보를 발간한 것은 처음으로, 김정은의 권력 공고화에 맞춰 대내외에 ‘애민 면모’를 선전하고 이상화에 힘을 싣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됨.

##### ■ 김정은 완공 독려 여명거리 주택 90% 완료…北신문(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완공을 독려한 평양 여명거리의 주택 건설작업이 9부 능선을 넘었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6일 보도함.
- 신문은 이날 1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올해 전투목표를 기어이 수행하자’는 제목의 머리 기사를 통해 “13일 현재 려명거리 건설장적으로 (건설장 전체적으로) 완성된 살림집은 총 세대수의 90% 계선을 넘어섰으며 새로 일떠서는 공공건물들의 공사도 마감 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힘.
- 신문은 “지난해 함북도 북부 피해복구 전선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 승리를 이룩하는 데 크게 기여한 그 기상, 그 본때를 계속 힘있게 과시하고 있다”면서 전체 공정률은 78%에 달한다고 소개함.

2017. 1. 18.

■ **北 조직지도부, 작년 말 보위성 전격 검열(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전문부서 중 핵심부서로 국가기관의 모든 행정과정을 지도·감독하는 조직지도부가 작년 말 우리의 국가정보원에 해당하는 국가안전보위성을 전격 검열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소식통을 인용해 18일 보도함.
-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보위성 간부들이 새해를 앞두고 벌어진 중앙당 조직지도부 6과의 검열로 혼쫓이 빠졌다”며 “노동당 조직지도부 6과는 보위성의 간부 사업과 활동을 지휘·감독하는 기관”이라고 말했다고 RFA는 전함.
- 보위성이 갑작스럽게 검열을 받게 된 것은 지난해 보위성 산하 검열기관인 ‘612 상무’를 통한 전국순회 검열에서 다른 사법기관들이 다뤄야 할 사건들을 파헤치고 횡포를 부렸기 때문이라고 이 소식통은 지적함.

■ **北, 김정은 우상화 가속..업적찬양 해외토론회도 개최(연합뉴스)**

-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업적을 찬양하는 해외토론회까지 열면서 ‘김정은 우상화’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음.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8~10일 파키스탄 카라치에서 ‘김정은 장군과 오늘의 조선’이라는 주제로 아시아태평양지역 인터넷토론회가 열렸다고 18일 보도함.
- 김씨 일가를 우상화하기 위한 국제대회인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의 아시아태평양지역준비위원회와 파키스탄전국준비위원회가 공동주최한 행사에는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일본, 영국 등 각국의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고 신문은 전함.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2017. 1. 14.

■ **北, ICBM 개발 시뮬거리 못돼...美 사고방식 바꿔야(연합뉴스)**

-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준비작업 마감단계’라고 밝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는 “정정당당한 자주적 권리의 행사”라며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함.
-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14일 개인필명 논평을 통해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 인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륙간탄도로켓(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의 길로 나가는 것은 국제법에도 저촉되지 않으며 그 누구의 시비(빛)거리로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논평은 ICBM 개발이 “철두철미 날로 악랄해지는 미국의 핵전쟁 위협에 대처한 자위적 국방력 강화 조치의 일환”이라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을 비롯한 미측 인사들이 대북제재 지속 의지를 밝힌 것을 비난함.

■ **北매체, ICBM 시험발사 머지않아 진행…정치적 흥정물 아냐(연합뉴스)**

- 북한은 1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머지않아 진행될 것”이라며 이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흥정물’이 아니라고 밝힘.
- 북한의 인터넷 선전매체인 ‘메아리’는 웹사이트에 게재한 문답 형식의 글에서 “대륙간탄도로켓(대륙간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힘.
- 이 매체는 “머지않아 진행될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는 그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흥정물이 아니다”라며 “오직 민족의 존엄과 위상을 떨치고 나라와 겨레의 운명을 지키며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에게는 무서운 철추를 안길 역사적 사변으로 될 것”이라고 주장함.

2017. 1. 15.

■ **北매체, 위성 발사 중단없이 계속될 것(연합뉴스)**

- 북한 관영 매체가 15일 “우리의 평화적 위성발사는 중단없이 계속될 것”이라며 장거리 로켓을 쏘아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힘.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은 총과산의 운명을 면치 못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의 우주개발사업은 그 누가 반대한다고 해서 포기할 사업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함.
- 신문은 “민족의 존엄과 자존심을 걸고 진행하는 우주개발에서 첨단을 돌파하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라며 “우리나라는 세계가 우러러보는 우주강국으로 비약할 것”이라고 강조함.

2017. 1. 17.

■ **北 “병진노선은 진리…도전하면 망해” 핵개발 고수 의지(연합뉴스)**

-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핵 개발과 경제 건설을 동시에 추구하는 ‘병진노선’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7일 ‘병진은 진리이며 승리의 기치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은 정세와 혁명 발전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것으로 가장 정당한 전략적 노선”이라고 주장함.
- 중앙통신이 병진노선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도 최근 트럼프 행정부 외교·국방·정보 분야 수장으로 내정된 핵심 인사들이 의회 인준청문회 등에서 북핵 문제에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힌 것을 의식한 ‘기 싸움’으로 해석됨.

#### ■ 北매체 “김정은, 인민의 아들”...‘뭍낫추기’ 계속하나(연합뉴스)

- 북한 매체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인민 사랑’을 강조하며 그를 인민의 ‘아들’로 칭해 주목됨.
- 북한의 대외 선전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지난 14일자 신문 2면에 ‘인민의 위대한 아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 17일 확인됨.
- 북한 매체가 김정은에게도 ‘인민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붙인 것은 올해 신년사에서 나타난 ‘검손’ 행보에 보다 힘을 실어 애민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임.

#### ■ 北매체 “美 이중잣대 거부”...ICBM 시험발사 위협(연합뉴스)

- 북한 매체가 17일 자신들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향후 ICBM 시험발사를 강행하겠다고 위협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일부 나라들이 대륙간탄도로켓을 비롯한 각종 로켓 시험발사들을 경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이중적인 잣대에 따라 어떤 나라에 대해서는 자위적 조치가 도발로 매도되지만, 어떤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도 없이 무사 통과되고 있다”고 주장함.
- 논평은 이어 “이중기준 적용은 극도의 전횡이며 현 시기 국제관계 발전에 백해무익하다”며 “자주권과 영토 완정(통일)을 수호하기 위한 주권국가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 조치는 그 어떤 경우에도 국제기구의 비난과 간섭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임.

2017. 1. 18.

#### ■ 北 “AI 방역 강화” 선전...발병 실태는 ‘침묵’(연합뉴스)

- 북한에서도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병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북한

- 당국이 AI 등 전염병 방역 사업에 힘쓰고 있다고 관영 매체가 전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8일 “조선에서 질병과 공해를 막기 위한 위생방역 사업에 보다 큰 힘을 넣고 있다”며 사례 가운데 하나로 AI 방역을 언급함.
  - 통신은 중앙과 각 도(道) 인민병원이 각 기관과 가정을 상대로 방역 선전을 하고,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감독·통제를 강화했다고 밝히는 등 북한 당국이 취한 조치도 언급함. 그러나 AI를 비롯한 전염병의 실제 발병 여부는 거론하지 않았음.

2017. 1. 20.

■ **北신문, 트럼프 취임일 맞아 'ICBM 발사' 또 위협(연합뉴스)**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한이 20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는 자위적 조치라며 언제, 어디서든지 발사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는 시비거리로 될 수 없다’는 제목의 개인 논평을 통해 “미국의 핵전쟁 위협에 대처하여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를 진행하는 것은 누구의 시비거리로 될 수 없는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라고 밝힘.
- 신문은 “미국의 핵 공갈에 대처하여 우리가 대륙간탄도로켓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을 만들어 시험해도 미국은 할 말이 없게 되어 있다”면서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켓은 최고 수뇌부가 결심하는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발사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함.

## 2. 경제

###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 나.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 다. 경제 상황

2017. 1. 18.

■ **北 지하자원 헐값에 팔린다…가공산업 경쟁력 미비 탓(연합뉴스)**

- 북한 지하자원이 가공산업의 경쟁력 미비로 해외에 헐값에 팔리는 것으로 분석됨.
- 북한자원연구소는 18일 ‘북한 지하자원 가공산업 현황과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은 많은 양의 지하자원이 매장돼 있음에도 가공산업 시설 노후화와 전력부족 등의 한계로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밝힘.
- 앞서 김일성종합대학학보는 2016년 4호(지난해 12월 10일 발행) 논문에서 북한에 풍부한 연·아연·마그네사이트·흑연·규석·희토류 등 광물 자원을 가공해 수출하는 방안을 언급함.

라. 대외 경제 관계

2017. 1. 20.

■ **中, 북중경협 상징 황금평 경제특구 접나…진입로 없애(연합뉴스)**

- 중국이 북·중 경협을 상징하던 황금평 경제특구로 들어가는 도로를 없앴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소식통을 인용해 20일 보도함.
- 중국 단둥(丹東)의 한 소식통은 RFA에 “중국에서 황금평으로 들어가는 임시도로를 최근 중국 측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고 본래의 모습으로 복구해 놓았다”고 밝힘.
- 2011년 황금평 경제특구 기공식 당시 조성했던 이 도로는 중국과 황금평 간에 건설 장비와 차량이 드나들던 통로라고 소식통은 설명함. 그는 이어 “이 길을 없앴는 것은 중국 측에서 황금평 개발에 대한 의지를 완전히 접은 징후”라고 주장했다고 RFA는 전함.

■ **북·중, 수산물 가공교역 ‘활발’…제재 틈새 뚫기(연합뉴스)**

- 중국 훈춘(琿春)시 수산물 가공업이 최근 호황을 누리면서 일부 업체들이 대북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수산물 가공의 하청을 북한에 주기 시작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0일 보도함.
- 훈춘시가 러시아, 한국, 일본, 브라질 등지에서 들여온 수산물을 북한에서 가공한 뒤 중국으로 재반입하기 시작했다며 가공업체들이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생산단가를 줄이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고 방송은 전함.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최근 수산물 생산을 독려하고 있으며, 수산물은 석탄이나 철광석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대북교역 제한 또는 금지 품목이 아니라고 방송은 설명함.

### 3. 사회문화

####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2017. 1. 15.

- **北, 탈북자 은신처 없애려 함경북도 수해 마을 고의 방치(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탈북자들의 은신처를 없애기 위해 고의로 수해 피해 마을들을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보도함.
  - RFA는 미국의 상업위성이 지난해 10월 25일 촬영한 함경북도 회령시 강안동과 망양동의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홍수가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났을 당시에도 이 지역의 수해복구는 큰 진척이 없었다고 전함.
  - 김정은 정권이 탈북 방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지난해 홍수로 인해 함경북도 지역의 탈북 요충지들이 사라지면서 앞으로 탈북은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RFA는 설명함.

2017. 1. 16.

- **北, 학생들에 학교 컴퓨터 구매비용 상납 강요(연합뉴스)**
  -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교육 정보화 현대화 방침에 따른 국가적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 학교들이 컴퓨터 도입 비용을 자체 확보한다는 명목하에 학생들에게 현금 상납을 강요하는 것으로 알려짐.
  - 북한 전문매체인 데일리NK는 16일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 “인계 고급중학교(고등학교)를 비롯한 회령 시내 일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방학과제로 ‘컴퓨터 구매비용 장만 과제’를 줬다”고 보도함.
  - 소식통에 따르면 학교들은 가정형편에 따라 학생 1인당 중국 돈 50~100위안(한화 8천600원~1만7천원)을 부과함.

2017. 1. 18.

- **北, 외교사절에 “공사장 사고현장 찍지 말라” 통보(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북한 주재 외교사절단에 군사보안시설은 물론 건설현장과 사건·사고 장면까지 촬영을 금지한다고 통보했다고 미국의 북한전문 인터넷 매체인 'NK뉴스'가 18일 보도함.
  - NK뉴스는 최근 외교사절단에 배포된 안내서를 인용해 “사진촬영은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명승지, 유원지 등 사진촬영이 허용되는 모든 참관지를 기념으로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힘.

- 안내서는 동시에 촬영금지 대상으로 “인민무력기관과 인민보안기관과 그 인원들, 군사기지, 군수공장, 군용비행장, 중요 국가기관과 공장, 기업소, 과학연구기관, 설 계기관, 중요설비, 발전소, 방송국, 전신전화소, 송수신소, 유선 및 무선통신중계소, 공개되지 않은 출판물, 창의고안품들, 창고시설, 지하시설, 지하구조물, 사건·사고 현장, 정리하지 못한 건설장” 등을 나열했다고 매체는 전함.

2017. 1. 20.

■ **北 90년대 너무 굵어 징병처질...병역기피 단속강화(연합뉴스)**

- 북한이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의 여파로 병사 징집에 차질을 빚자 병력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고 UPI통신이 일본 매체 아시아프레스를 인용해 20일 보도함.
- 북한의 소식통은 아시아프레스에 “북한의 군사동원부가 최근 학교를 돌아다니며 징집대상인 학생들을 상대로 신체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전함.
- 북한의 징병절차는 통상적으로 봄에 시작함. 하지만 최근 병역기피 사례가 급증하면서 북한당국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는 이례적으로 연초부터 징집을 시작했다고 소식통은 전함.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2017. 1. 16.

■ **北, 김정은 신년사 자아비판에 “주민들 자책의 눈물”(연합뉴스)**

-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신년사의 ‘자아비판’ 발언을 주민들의 자책을 유도해 내부 기강을 다지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북한의 인터넷 선전매체인 ‘메아리’는 16일 김정은 신년사에 대한 함경북도 무산군 간부·주민들의 ‘반향’을 담은 ‘무산군 주민들 모두가 자책의 눈물을 흘렸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함.
- 북한 관련 전문매체 데일리NK도 지난 11일 함경북도 현지 소식통을 인용, 북한 당국이 신년사의 ‘자책’ 대목을 강조하면서 주민들에게 자아비판을 강요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음.

#### ■ 북한 의사들 가장 선호하는 직장은 정신병원(연합뉴스)

- 북한 의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은 한국의 정신병원에 해당하는 ‘49호 병원’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소식통을 인용해 16일 보도함.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조선(북한)에서 의사들이 안정적으로 돈벌이할 수 있는 병원은 49호 병원”이라며 “무상치료제가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기 때문에 의사들도 먹고살기 위해 돈벌이가 되는 병원을 찾아 나선다”고 RFA에 전함.
- 소식통은 “49호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은 대부분 돈 많은 마약사범이거나 범법자들”이라면서 “교화소 처벌을 피하려고 정신병을 핑계로 49호 병원으로 도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설명함.

2017. 1. 19.

#### ■ 북세관 경비대 신병, 소대원 7명 사살...구타 불만(연합뉴스)

- 북중 접경인 북한 양강도 혜산의 세관 경비소대에서 신입 병사가 같은 소대원들을 사살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보도함.
-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이 방송에 “상급 병사들의 괴롭힘에 분노한 혜산 세관 보위소대 소속 신입 병사가 같은 소대원들을 사살한 후 체포되는 사건이 7일 새벽 발생했다”고 말함.
- 이 신병은 깜박 졸다가 보초 교대 시간을 놓친 자신을 부소대장이 심하게 폭행하자, 그 자리에서 소대장과 부소대장, 병사 등 모두 7명에게 단발사격을 가해 살해했다고 또 다른 현지 소식통은 RFA에 전함. 소식통은 “양강도의 사법기관들에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말함.

## 4. 외교국방

### 가. 북·미 관계

2017. 1. 18.

■ **美의회, 연초부터 '北테러지원국' 재지정 압박 고삐...법안 발의(연합뉴스)**

- 미국 의회가 새해 벽두부터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테러지원국'(State Sponsors of Terrorism)으로 재지정하기 위한 압박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음.
- 이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다가, 그동안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미온적이었던 버락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와 달리 도널드 트럼프의 공화당 새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법안을 재발의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임.
- 17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테드 포(텍사스) 하원의원은 지난 12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H.R 479)을 공식 발의함.

■ **로즈 美NSC 부보좌관, 北문제 해결위한 진정한 압력은 내부에서(연합뉴스)**

-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 동원될 수 있는 진정한 압력은 북한 내부로부터만 나올 수 있으며, 보통 북한 사람들을 외부 세계와 더 적극적으로 연결시키는 일이 그런 압력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벤 로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이 강조함.
- 퇴임을 앞둔 로즈 부보좌관은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외신기자클럽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아 “북한 사람들과 세계의 나머지 부분을 더 강하게 연결시키려는 흥미있는 시도가 있어 왔다”며, 북한 문제 해결에서 “진정으로 중요하면서도 유일한 압력은 내부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함.
- 로즈 부보좌관은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미사일방어체계에 투자했던 것은, 그(북한) 위협에 대한 통제와 스스로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필요했던 책임있는 일들”이라고 전제함.

■ **美백악관 “북한 핵·미사일 문제, 트럼프 레이더 화면에 있다”(연합뉴스)**

- 미국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을 ‘중점 관찰 대상’ 목록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짐.
- 조시 어니스트 미 백악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차기 트럼프 행정부 간 정권 인수와 관련해 “북한 문제를 포함한 여러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함.
- 어니스트 대변인은 “그래서 북한의 위협이 차기 대통령과 팀의 레이더 화면에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임.

2017. 1. 19.

■ **유엔美대사 내정자, 대북압박 고삐 늦출수 없어...제재이행 중요(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새 미국 행정부의 유엔주재 미국 대사 내정자인 니키 헤일리는 18일 (현지시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대북압박의 고삐를 조금도 늦출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냄.
- 헤일리 내정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대북)제재는 이행할 때만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고, 분명히 북한에 대해서는 (제재이행 측면에서) 더 할 부분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힘.
- 그는 특히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는데도 아무런 말(조치)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 북한은 확실하게 잘 주시해야 할 국가”라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북한의 위협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대처하려면 중국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북한에 대한 태도(대북압박 고삐)를 절대 누그러뜨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 **北, 美 케리 다보스포럼 간담회 발언 비난...패배자의 넋두리(연합뉴스)**

- 북한은 19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최근 스위스 다보스 포럼의 간담회에서 한국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는 북한 독재자의 잠재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발언을 거론하며 “패배자의 넋두리”라고 비난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 국무장관 케리가 17일 다보스세계경제연단(포럼)에서 입에 담지 못할 악담을 늘어놓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대변인은 “우리에게는 케리의 망발이 동방의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솟구쳐오른 우리 공화국의 눈부신 발전상에 기절초풍하여 극도의 공포와 불안에 떨고있는 패배자의 가소로운 넋두리(넋두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가련한 자의 꺼져가는 비명소리에 불과하다고 비꼬았음.

2017. 1. 20.

■ **美, 90년대에 이미 “北, 제재해도 핵포기 안해” 결론(연합뉴스)**

- 미국 정보 당국이 1990년대 초반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하더라도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20일 밝혀짐.
- 연합뉴스가 이날 입수한 기밀해제 된 1991년 12월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NIC는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할 경우 북한에 미치는 영향을

시물레이션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등의 반응을 다각도로 예측함.

- 보고서는 우선 대북제재가 휘청이던 북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내다봤음. 특히 석유 공급이 끊어지면 핵심산업들마저 붕괴하고, 식량 수입이 줄어들면서 당시 하루 두 끼로 연명하던 주민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시나리오를 도출함.

#### ■ 미국방부, 北미사일 美 동맹 위협시 격추 입장 재확인(연합뉴스)

- 미국 국방부는 19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움직임과 관련,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과 동맹을 위협할 경우 격추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함.
- 피터 쿡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애슈턴 카터 장관이 지난주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이나 동맹에 위협이 되면 격추할 것이라는 말했는데 이게 여전히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것은 미 정부의 입장이다. 그리고 국방부와 국방장관의 입장”이라고 답변함.
- 쿡 대변인은 아울러 북한의 ICBM 시험발사 움직임 확인 요청에 대해서도 “정보 사안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며 언급을 자제함.

## 나. 북·중 관계

2017. 1. 18.

#### ■ 中, 자국 기업에 ‘맹목적 북한진출 주의’ 경고(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 ‘맹목적’ 대북 진출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북한에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각종 사항을 안내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8일 보도함.
- 방송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최근 펴낸 ‘대외투자합작 안내서’ 북한 편을 통해 대북 투자와 관련한 기본 정보 및 주의사항을 소개함.
- 안내서는 몇몇 중국 기업이 맹목적으로 북한에 진출했다가 손해를 본 일이 있다며, 대북 투자 시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기반시설 등 제반 환경을 충분히 조사할 것을 당부했다고 방송은 전함.

## 다. 북·일 관계

#### ■ 특이사항 없음

## 라. 북·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7. 1. 16.

- **평양, 스웨덴식으로 설계?…北, 스웨덴대에 건축교육 협력 제안(연합뉴스)**
  - 북한이 작년 가을 스웨덴의 한 대학에 건축교육에 대한 상호협력을 제안, 양측 간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16일 알려짐.
  - 스웨덴의 북한 관련 소식통은 “스웨덴 주재 북한 대사관이 작년 가을에 스톡홀름에 있는 왕립공과대학(KTH) 측에 건축교육에 대한 상호협력을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함.
  - 이 같은 북한의 제안에 따라 KTH 건축학과의 관계자들과 북한 대사관 측이 그동안 여러 차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 소식통을 전함.

2017. 1. 19.

- **캄보디아, ‘우방’ 北에 쓴소리…“핵반대 안보리 결의 존중” 촉구(연합뉴스)**
  - 캄보디아가 전통 우방인 북한에 핵 프로그램 폐기를 요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들을 존중하라고 다시 한 번 촉구함.
  - 19일 캄보디아 정부에 따르면 프락 속훈 캄보디아 외무장관은 지난 17일 장운곤 주캄보디아 북한대사의 예방을 받고 양국 관계와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음.
  - 속훈 장관은 이 자리에서 캄보디아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존중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전에 발표한 북한 핵실험에 대한 성명들을 상기시켰다고 일간 캄보디아데일리가 외무부 대변인을 인용해 전함.

2017. 1. 20.

- **EU 집행위 “북한, 이란 등 10개국 돈세탁·테러자금지원 위험국”(연합뉴스)**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북한을 비롯해 이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등 10개국을 ‘돈세탁 및 테러 자금지원 위험국’으로 지정함.
  - 돈세탁 및 테러 자금지원 위험국 명단에 오른 국가의 국민이나 기업이 EU 역내에서 거래할 경우 EU로부터 더 엄격한 규제를 받는 등 사업상 불이익을 받게됨.

- 유럽의회가 돈세탁 및 테러 자금지원 위험국 명단을 부결시킴에 따라 EU 집행위는 유럽의회 의 요구를 수용해 명단을 재작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상국가는 이번에 명단에 오른 국가에다가 조세회피처 국가들이 추가되는 '10+α'가 될 것으로 보임.

## 바. 군사 및 핵·미사일

2017. 1. 19.

### ■ 北,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2기 제작...시험발사 빨라질 듯(연합뉴스)

-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신형 미사일 2기를 제작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ICBM 시험발사 준비가 마감단계에 있다고 밝힌 이후 실제 ICBM으로 보이는 미사일을 제작함에 따라 시험발사가 예상보다 빨리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음.
- 19일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한미 군사외교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은 최근 신형 탄도미사일 2기를 제작함. 한미는 이 미사일을 북한이 시험 발사할 것이라고 예고한 ICBM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짐.
-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신형 ICBM 추정 미사일 2기가 제작된 것에 대해 “북한의 ICBM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음.

### ■ 38노스, 북한 영변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 재가동 조짐(연합뉴스)

- 북한이 평안북도 영변 핵단지에서 플루토늄 생산용 원자로의 작업을 재개할 조짐이 있다고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밝힘.
- 군사 전문가 조지프 버뮤데스 연구원은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촬영된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함.
- 최근 4개월 동안 영변 핵단지의 5MW 원자로 시설과 주변에서 보수, 연료 급유나 재가동 작업을 위한 차들이 계속 포착됨. 5MW 원자로가 완전히 가동되면 북한은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매년 핵무기 2개 분량에 해당하는 약 6kg의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II 동북아정세

### 1. 한반도정세

####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1.20	日 아사히 “한미, 사드 한반도 배치 올해 7월 목표”(연합뉴스)	
		한미일, 北 미사일 탐지·추적훈련 20~22일 실시(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1.15	정부, 중국서 한국 화장품 수입 불허에 ‘사드 영향’ 긴급점검(연합뉴스)	
	1.18	중국, 한국산 양변기도 무더기 불합격 처분(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1.15		日 외무상, 윤병세 장관 발언 “합의이행 중요하게 생각”(연합뉴스)
	1.17	‘독도 소녀상’ 건립계획, 한일관계 세 변수될듯…日 반발 본격화(연합뉴스)	日외무상, 독도 소녀상 추진에 “독도는 일본땅” 도발(연합뉴스) 日관방, 독도 소녀상 설치 움직임에 한국에 항의했다(연합뉴스)
	1.18		아베, 순방후 첫 소녀상 대응회의…대사 귀임 더 논의할 것(연합뉴스)
	1.19	정부 ‘독도 소녀상’ 사실상 반대…한일 갈등 진화 시도(연합뉴스)	日, 주한대사 귀임 이번주 안해…아베, 먼저 움직임 필요 없다(연합뉴스)
	1.20		日 “평창 올림픽 홈페이지 ‘독도’ 표기 바뀌라” 요청…또 독도 도발(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 2. 주변국정세

###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1.14		中, 자국 영해서 美 본토 타격하는 최 신 전략핵잠수함 배치(연합뉴스)
	1.15		中 외교부, '하나의 중국'은 중-미 관계 서 협상 불가한 기반(연합뉴스)
	1.18		바이든 만난 시진핑...미-중 협력, 양국 근본이익에 부합(연합뉴스)
	1.19		제네바 방문 시진핑, 美와 새로운 관계 형성하겠다(연합뉴스)
1.20	매케인 "시진핑, 자유무역 강조하며 韓 에 사드보복하는 건 위선"(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1.20		日 언론, 미일 정상회담 2월 초 연기 추진(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1.14	트럼프, 러시아 제재 해제 가능...하나 의 중국은 협상 대상(연합뉴스)	
	1.19	유엔주재 美대사 내정자, 러시아 못 믿 어...늘 조심해야(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1.16		베트남 방문 日 아베, 中 겨냥 "지역 평화·번영 주도하겠다"(연합뉴스)
	1.17	중국, 日극우주의에 "역사 반성하고 행동으로 믿음줘야"(연합뉴스)	

	1.19	중국, 미국우주의에 일침...난징대학 살 기념관 와서 양심찾아야(연합뉴스)	日,이와쿠니 기지에 F-35 전투기도 배 치...중겨냥 美군사 거점화(연합뉴스)
<b>분류</b>	<b>일자</b>	<b>중국</b>	<b>러시아</b>
중러 관계			
<b>분류</b>	<b>일자</b>	<b>일본</b>	<b>러시아</b>
일러 관계	1.16		日, 북방 영유권 분쟁지역에 항공편 추 진...러와 경협 시동(연합뉴스)
	1.18	러일, 영유권 분쟁섬 공동경제활동 방안 협상 착수(연합뉴스)	

## ■ 주간 동향

### 1. 한반도정세

#### 가. 한·미 관계

2017. 1. 20.

##### ■ **日 아사히 “한미, 사드 한반도 배치 올해 7월 목표”(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 정부가 오는 7월 한국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양국 소식통을 인용해 20일 보도함.
- 이 신문은 “한미 정부가 미군의 사드 한국 배치를 7월까지 완료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시작했다”며 “이는 12월 예정됐던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가 이르면 이번 봄에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이 압력을 높이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전함.
-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는 7월까지 배치 완료를 요구한 주한미군 요청으로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보도함.

##### ■ **한미일, 北 미사일 탐지·추적훈련 20~22일 실시(연합뉴스)**

-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2기가 포착된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이 20일부터 22일까지 미사일정보훈련을 한다고 해군이 20일 밝힘.
- 북한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능력을 키우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3국의 이지스 구축함이 참가할 예정임.
- 우리 측에서는 세종대왕함이, 미국은 스테덤함, 일본은 기리시마함이 각각 참가할 것이라고 해군이 설명함.

#### 나. 한·중 관계

2017. 1. 15.

##### ■ **정부, 중국서 한국 화장품 수입 불허에 ‘사드 영향’ 긴급점검(연합뉴스)**

- 한국산 화장품이 중국에서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로 보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 정부가 긴급 실태 조사에 나섬.
- 최근 한국산 화장품의 무더기 수입 불허 등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데 따른 것임. 15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주중 한국대사관은 오는 16일 중국에 진출한 한국 화장품 업체 관계자들을 상하이(上海)로 모두 불러 '사드 관련 영향'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함.

- 정부가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해 관련 업체들을 중국 현지에서 직접 소집해 사드 관련성 등을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임. 이는 한류 연예인 및 드라마와 더불어 중국에서 핵심 인기상품인 한국산 화장품이 차별받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 챙기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돼있는 것으로 보임.

2017. 1. 18.

#### ■ 중국, 한국산 양변기도 무더기 불합격 처분(연합뉴스)

- 한국과 중국 간에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로 갈등을 빚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한국산 화장품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산 양변기도 품질 불량을 이유로 무더기 불합격 처분한 것으로 확인됨.
- 18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은 지난달 20일 수입 전자 양변기 검사 결과를 공고했는데 106개 조사 대상 중 불합격한 47개 품목 거의 전부가 한국 원산지였음.

### 다. 한·일 관계

2017. 1. 15.

#### ■ 日 외무상, 윤병세 장관 발언 “합의이행 중요하게 생각”(연합뉴스)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지난 13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위안부 소녀상 관련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도 한일 합의 이행이 중요하다고 발언하고 있으며 외교 장관도 그런 생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함.
- 15일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외무상은 지난 14일 히로시마(廣島)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함. 기시다 외무상은 지난 9일 일시귀국시킨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의 귀임 시기에 관해서는 “정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며 “지금 시점에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힘.
- 윤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산 ‘평화의 소녀상’ 문제와 관련, “국제사회에서는 외교공관이나 영사공관 앞에 어떤 시설물이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일반적 입장”이라고 말함.

2017. 1. 17.

■ **日외무상, 독도 소녀상 추진에 “독도는 일본땅” 도발(연합뉴스)**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17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함.
- 교도통신에 따르면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의회가 독도에 소녀상 설치를 추진하는데 대한 질문을 받자 “다케시마는 원래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그런 입장에 비춰봐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함.
- 기시다 외무상은 부산 소녀상 설치에 반발해 일시 귀국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의 귀임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한 것이 없다”고 말함

■ **日관방, 독도 소녀상 설치 움직임에 한국에 항의했다(연합뉴스)**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17일 독도에 소녀상을 설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 측에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힘.
- 일본 정부 대변인인 그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경기도의회가 독도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기 위해 모금운동에 들어간 데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한 질문에 “그런 보도를 보고, 즉각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힘.
- 스가 장관은 이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장에 비추어도 수용할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라고 말함.

■ **‘독도 소녀상’ 건립계획, 한일관계 새 변수될듯…日 반발 본격화(연합뉴스)**

- 경기도의회가 16일 도의회 내는 물론 독도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기 위해 모금 운동에 들어간 데 대해 일본 내에서 언론매체들은 물론 야당 의원까지 반발하고 나서 주목됨.
- 교도통신은 경기도의회 의원 34명이 참여한 단체가 도의회에 소녀상 건립을 위한 모금함을 설치했다고 전하면서 “경기도의원 등의 활동이 소녀상 설치로 이어질지는 불분명하지만, 관련 운동이 진행된다면 한일관계가 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17일 보도함.
-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이날자 1면에 경기도의회의 관련 소식을 전하고, “서울의 일본대사관 앞에 이어 지난 연말 부산 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독도 등에) 또 소녀상이 설립되면 한일 간에 새로운 외교 문제로 발전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함.

2017. 1. 18.

■ **아베, 순방후 첫 소녀상 대응회의…대사 귀임 더 논의할 것(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8일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을 다녀온 뒤 처음으로 한국의 위안부 소녀상 설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를 열었음.
-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사무차관 등 외무성 간부들과 한국과의 외교 관계를 논의함.
- 외무성 간부는 기자들에게 “일시귀국 시킨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 대사의 귀임 시기 등에 대해 아베 총리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과 하루, 이틀 사이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함.

2017. 1. 19.

■ **정부 ‘독도 소녀상’ 사실상 반대…한일갈등 진화 시도(연합뉴스)**

- 경기도의회와 독도 위안부 소녀상 건립 계획에 정부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소녀상’에서 ‘독도’로 옮겨붙은 한일갈등을 진화하려는 조치로 보임.
-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소녀상 건립 계획에 대한 입장을 묻자 “소녀상 관련 사안을 성격이 전혀 다른 독도와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함.
- 조 대변인은 곧이어 두 사안을 누가 연계하고 있다는 것이냐는 물음에 특정한 주체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언급은 사실상 소녀상 설립 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됨.

■ **日, 주한대사 귀임 이번주 안해…아베, 먼저 움직일 필요 없다(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일시 귀국 조치 중인 주한 일본대사를 이번 주 중 한국으로 귀임시키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9일 보도함.
- 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날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과 논의를 한 결과 이번 주 중에는 일시 귀국 조치 중인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 등을 한국으로 귀임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함.
- 이 관계자는 아베 총리와 기시다 외무상이 “한국 측의 자세에 변화가 없으니 일본 측이 먼저 움직일 필요성이 없다”는 데에 뜻을 함께했다고 설명함.

2017. 1. 20.

■ 日 “평창 올림픽 홈페이지 ‘독도’ 표기 바뀌라” 요청…또 독도 도발(연합뉴스)

- 부산 소녀상 설치 등을 둘러싸고 한일 관계가 얼어붙은 가운데 일본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의 홈페이지의 독도 표기를 지적하며 도발을 하고 나섰다.
- 교도통신은 20일 일본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 홈페이지 ‘독도’ 표기를 하지 말아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외무성이 평창동계올림픽 대회조직위원회의 홈페이지 지도 등에 ‘Dokdo(獨島)’라며 한국령으로 표기된 것에 대해 한국 정부에 조치를 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함.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7. 1. 14.

■ 中, 자국 영해서 美 본토 타격하는 최신 전략핵잠수함 배치(연합뉴스)

- 중국이 위험성 노출을 줄인 채 자국 영해에서 미국 본토 등을 메가톤급 핵탄두로 타격할 수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적재 최신형 094A형 전략 핵잠수함(SSBN)을 실전 배치한 것으로 확인됨.
- 미국의 과학 전문매체 포플러 사이언스에 따르면 중국 남해함대는 하이난도(海南島) 유린(榆林) 해군기지에 최신형 094A형 SSBN 한 척을 배치함.
- 전문가들은 096형으로는 태평양 심해로 항진하지 않고서도 남중국해에서 미 본토를 쉽게 공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들 핵잠수함은 소음이 많이 줄어들어 은밀성이 개선된 데다 공기 불요 추진체계(AIP)를 갖춰 수중작전 능력도 향상됐다고 평가함.

2017. 1. 15.

■ 中 외교부, ‘하나의 중국’은 중·미 관계서 협상 불가한 기반(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는 14일 ‘하나의 중국’은 중국·미국 관계에서 “협상 불가한” 정치적 기반이라며 ‘협상 중’이라고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당선인의 발언을 정면으로 받아침.
- 중 외교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의 “관련 당사자들이” 대만 문제의 민감성을 인지할 것을 촉구함.
- 앞서 트럼프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느냐는 월스트리트저널 기자의 질문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포함해 모든 것이 협상 중(under negotiation)”이라고 답함.

## 2017. 1. 18.

### ■ 바이든 만만 시진핑...미·중 협력, 양국 근본이익에 부합(연합뉴스)

- 스위스에서 열리고 있는 다보스 포럼에 참석중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 회담함.
- 18일 중국 반관영통신인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시 주석은 17일(현지시간) 다보스에서 바이든 부통령을 만나 양국의 지속적인 협력이 양국은 물론 세계 인민의 근본적인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힘.
- 이는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최근 대(對)중 공세를 겨냥한 것임. 트럼프 당선인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흔드는 발언과 함께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비난하는 등 대중공세를 강화하면서 균열이 생기고 있음.

### ■ 중하이난다오에 美본토 타격 가능 핵잠수함 배치(연합뉴스)

- 중국이 남중국해 하이난다오(海南島)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잠수함(SSBN)을 배치했다는 보도가 나왔음.
- 18일 신라(新浪·시나)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하이난다오에 미국 본토를 핵탄두로 타격할 수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을 적재한 최신형 094A형 전략 핵잠수함을 실전 배치함.
- 현재 중국 영해에는 4척의 핵잠수함이 운항 되고 있음. 이 핵잠수함은 사거리가 1만1천200km로 확대된 ‘취랑(巨浪)-2A’(JL-2A) SLBM을 12발이나 실을 수 있어 파괴력이 대단한 것으로 알려짐.

2017. 1. 19.

■ **제네바 방문 시진핑, 美와 새로운 관계 형성하겠다(연합뉴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무국에서 연설하며 “중국은 미국과 새로운 관계 모델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함.
- 시 주석은 또 러시아와도 포괄적인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등 강대국 사이에 우호 분위기를 형성하겠다는 말도 함.
-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시 주석은 “강대국은 상대방의 핵심 관심 사안을 존중해야 하며 갈등, 대립 없이 상호 존중과 윈윈할 수 있는 협력 관계에 기반을 둔 새로운 관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함.

■ **中외교부, 트럼프 측에 “양자 갈등 대화로 해결하자”(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새로 들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대해 미·중간의 갈등을 건설적인 대화로 해결하자고 제안함.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한 중국 측 평론을 요구받자 “우리는 미국 새 행정부의 집권 기간에 미·중 관계가 지속해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힘.
- 화춘잉 대변인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에 ‘미국 주재 대만 대사가 참석하면 주미 주중대사는 불참할거냐’는 질문에 “미국에는 대만 대사가 없다”면서 대만은 미국과 공식 외교 관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함.

2017. 1. 20.

■ **매케인 “시진핑, 자유무역 강조하며 韓에 사드보복하는 건 위선”(연합뉴스)**

- 미국 공화당 소속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이 19일(현지시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의 전방위 보복 조치를 신랄하게 비판함.
- 매케인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중국의 한국 괴롭히기(bullying)에 대한 입장’ 성명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주초 (다보스포럼에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에 관한 공허한 연설을 했다”면서 “그 공산주의 지도자는 심지어 에이브러햄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의 게티즈버그 연설(문구)까지 인용했는데 이는 자각능력 부족 또는 고의적 위선으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고 주장함.
- 이어 “(그렇게 자유무역을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 중국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동맹의 결정을 토대로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한국에 대해 경제적 보복의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면서 “중국은 (한중간) 전세기 운항을 중단시키고 한국산 화장품과 다른 제품들의 수입을 금지했으며, 한국 음악을 불법화하고 한국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함.

## 나. 미·일 관계

2017. 1. 20.

### ■ 日 언론, 미일 정상회담 2월 초 연기 추진(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애초 이달 하순 개최를 추진 중이었던 미일 정상회담이 내달 초로 늦춰질 것으로 보임.
- 지지통신은 일본 정부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상회담을 2월 초 백악관에서 여는 방안을 트럼프 당선인 측과 조율하고 있다고 복수의 일본 정부관계자를 인용해 20일 보도함.
- 일본 정부는 현지시간으로 이날 열릴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행사 이후인 오는 27일께 양국 정상회담을 처음으로 여는 방안을 지난 연말부터 계속 조정해 왔음.

## 다. 미·러 관계

2017. 1. 14.

### ■ 트럼프, 러시아 제재 해제 가능…‘하나의 중국’은 협상 대상(연합뉴스)

-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가 집권 후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침.
- 트럼프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버락 오바마 정부가 러시아에 대해 한 제재를 해제할 가능성을 열어뒀으며 중국의 양안관계 원칙인 ‘하나의 중국’에 얽매이지 않을 뜻을 밝혔다고 WSJ가 13일(현지시간) 보도함.
- 우선 트럼프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미 대선 개입과 관련해 러시아에 부과한 제재는 ‘최소한 당분간은’ 유지하겠다고 밝힘.

2017. 1. 19.

### ■ 유엔주재 美대사 내정자, 러시아 못 믿어…늘 조심해야(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새 미국 행정부의 유엔주재 미국 대사 내정자인 니키 헤일리는 18일(현지시간) “러시아는 믿을 수 없는 국가”라고 말함.

- 헤일리 내정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러시아에 대한 입장을 물은 데 대해 이같이 밝힘.
- 그는 “러시아는 지금 (세계에) 자신들의 힘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하는 일들”이라면서 “우리는 (러시아에 대해) 늘 조심해야 한다. 그들을 믿을 수 없다”고 단언함. 그는 특히 러시아의 시리아 내전 개입과 관련, “(민간)병원 폭격 등은 전쟁범죄”라고 비판함.

## 라. 중·일 관계

2017. 1. 16.

### ■ 베트남 방문 日 아베, 中 겨냥 “지역 평화 번영 주도하겠다”(연합뉴스)

- 베트남을 방문 중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6일 하노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을 겨냥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함.
- 그는 이날 필리핀, 인도네시아, 호주, 베트남 등 중국과 인접해 있거나 거리상으로 가까운 태평양 연안 국가 4개국 방문을 마치면서 “법의 지배의 관철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4개국의 수뇌와 완전히 일치했다”며 이같이 말함.
- 아베 총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연대를 피하면서 남중국해 등에서 해양 진출을 노리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이번 순방을 마련함. 순방 중에는 필리핀, 베트남에 거액의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하며 중국과 긴장 관계를 보이고 있는 이들 국가에 손을 내밀기도 함.

2017. 1. 17.

### ■ 중국, 日극우주의에 “역사 반성하고 행동으로 믿음줘야”(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위안부 징용과 난징(南京)대학살을 부인하려는 일본의 극우주의 움직임과 관련해 역사를 제대로 반성하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믿음을 줘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섬.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인과 중국인들이 많이 묵는 일본 도쿄(東京)의 한 호텔체인이 객실에 일본군 위안부와 난징대학살 등 만행을 부정하는 우익서적을 비치한 것에 대해 “일본에서 일부 세력이 계속해서 역사를 직시하지 않고 심지어 역사를 부인하며 왜곡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고 비난함.
- 화춘잉 대변인은 “다들 알다시피 위안부 징용과 난징대학살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 군국주의가 범한 엄중한 반인륜범죄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역사적 사실이

다”면서 “우리는 성실하게 역사를 대하여 미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일본을 겨냥함.

2017. 1. 19.

■ **日, 이와쿠니 기지에 F-35 전투기도 배치…中겨냥 美군사 거점화(연합뉴스)**

- 일본 서부지역의 아마구치(山口) 현 이와쿠니(岩國) 기지에 미군의 첨단 전력인 잇따라 배치되는 등 중국을 겨냥한 군사거점화에 가속이 붙고 있음.
- 이런 미국-일본 양국의 이와쿠니 기지 군사력 강화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유사시 이와쿠니를 중심으로 중국을 향한 전력 전개를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보임.
- 19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미국 해병대 소속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인 F-35 2대가 지난 18일 저녁 이와쿠니 기지에 도착함.

■ **중국, 日극우주의에 일침…난징대학살 기념관 와서 양심찾아야(연합뉴스)**

- 난징(南京)대학살을 부인하는 서적을 비치한 일본 호텔 체인 사건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연일 맹렬히 비난을 퍼붓고 있음.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인들이 많이 묵는 일본 도쿄(東京)의 한 호텔 체인이 객실에 난징대학살 등 만행을 부정하는 우익서적을 비치한 것에 대해 “왔던 길을 망각하지 않아야 미래의 길을 잘 갈 수 있고 역사를 잊는다면 배반한다는 의미며 죄와 책임을 부인한다면 다시 범죄를 짓는 것”이라고 지적함.
- 객실 책상 서랍에 비치된 ‘아무도 말하지 않는 국가론’, ‘자랑스러운 조국 일본, 부활로의 제언’ 등에는 난징대학살의 존재 사실을 부정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보도가 나간 뒤 중국 여행사 ‘화왕 국제’가 APA호텔과 거래를 끊는 등 중국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음.

**마. 중·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일·러 관계**

2017. 1. 16.

■ **日, 북방 영유권 분쟁지역에 항공편 추진…러와 경험 시동(연합뉴스)**

- 일본이 러시아가 실효지배하는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에 조금 더 가까이 ‘접근’하고자 이르면 올해 봄 항공기 운항을 추진함.
- 1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을 빚는 쿠릴 4개 섬에 과거 거주했던 일본인이 성묘 등을 위해 현지 방문 시 항공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러시아와 논의할 방침임.
- 새해 들어 아베 총리가 올해 4월과 9월 두 차례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으로 알려져 일본의 ‘러시아 공들이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2017. 1. 18.

■ **러일, 영유권 분쟁섬 공동경제활동 방안 협상 착수(연합뉴스)**

- 일본과 러시아가 영유권 분쟁 대상인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에서의 공동경제 활동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에 나섰다고 교도통신이 18일 전함.
- 러시아를 방문 중인 기시 노부오(岸信夫) 외무성 부대신은 17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과 만나 북방영토에서의 공동경제활동 및 이들 섬 출신 일본인의 고향 방문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협의함.
-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쿠릴 4개섬에서의 ‘특별한 제도’에 근거한 공동경제활동 실현을 위한 협의를 개시한다”고 합의한 바 있음.

# Ⅲ 북한인권

##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1.17	영국 런던대, 북핵·인권 토론회(자유아시아방송)
	1.18	유엔서 첫 북 여성 인권 토론회(자유아시아방송)
북한인권 내부동향	1.16	北매체, 美 2차 인권제재 비난…단말마적 발악(연합뉴스)
북한인권 남한동향	1.20	정부, 올해 첫 북한인권정책협의회 개최(연합뉴스)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1.18	납북자단체, 유엔北인권사무소에 납북자 면담 청원(연합뉴스)
	1.19	캐나다 입국 탈북자 지난 3년 간 '세 명'(자유아시아방송)
대북지원	1.14	유니세프, 올해 대북 인도적 지원에 194억원 필요(연합뉴스)
	1.16	北 수해복구 지원금도 안모인다…국제적십자, 모금목표 절반↓(연합뉴스)
		아일랜드 NGO, 올해 125만 달러 규모 대북 지원(미국의소리)
	1.17	WFP, 매일 2회 식량분배감시로 투명성 강화(자유아시아방송)
	1.18	유진벨재단 결핵약 대북지원 승인…내달 반출(연합뉴스)
	1.19	월드비전, 올해 140만 달러 대북 지원 계획(미국의소리)

## ■ 주간 동향

###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7. 1. 17.

#### ■ 영국 런던대, 북핵·인권 토론회(자유아시아방송)

- 아시아·아프리카학 관련 세계적 명성을 지닌 SOAS런던대학교에서 17일 영국 초대 북한주재 대리대사를 지낸 제임스 호어(James Hoare) 박사와 탈북자 박지현 씨 등이 참석하는 북한 토론회가 열림.
- 이 대학 학생단체 중국·한국·일본 연구회(China Korea Japan Initiative)와 영국의 북한인권단체 유럽북한인권협회(European Allianc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EAHRNK)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임.
- 토론회에서는 영국 킹스칼리지런던(Kings College London)의 중국 전문가 케리 브라운 교수와 외부 정보유입으로 인한 북한 변화 가능성 등을 다룬 ‘북한의 숨겨진 혁명(North Korea’s Hidden Revolution)’의 저자로 영국 명문 옥스퍼드대학 박사 과정에 있는 백지은씨 등도 참석함.

2017. 1. 18.

#### ■ 유엔서 첫 북 여성 인권 토론회(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여성실무그룹’이 오는 3월 13일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개막되는 제61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의 병행행사로 북한 여성의 인신매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임.
- 북한여성실무그룹의 제이슨 웨스트 공동대표는 1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이 행사는 ‘탈북여성: 중국에서의 결핍과 인신매매(North Korean Refugee Women: Destitution and human Trafficking in China)’라는 주제로 열린다고 말함.
- 북한여성실무그룹이 지난해 제출한 제안서 내용은 회원국 간 비공개 회의이긴 해도 여성지위위원회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여성 인권유린이 논의되는 계기가 되었고, 각종 민간단체 등의 패널 토론회 주제로도 채택될 것이라고 웨스트 대표는 설명함. 북한여성실무그룹은 자체 웹사이트(nkwomen.com)를 운영하며 북한 여성의 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음.

###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7. 1. 16.

■ **北매체, 美 2차 인권제재 비난…단말마적 발악(연합뉴스)**

- 북한 매체가 16일 미국 국무부가 최근 북한 인권유린 실태에 책임이 있는 개인 7명과 기관 2곳을 추가로 제재대상에 올린 것과 관련해 “단말마적 발악”이라며 비난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11일 오바마패는 또다시 우리의 인권문제와 관련한 국무성의 2차 보고서와 그에 따르는 재무성의 조치로 우리나라의 개인 7명과 기관 2개를 추가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다”며 이같이 말함.
- 논평은 “우리의 존엄 높은 영상에 어떻게 하나 흠집을 내는 것으로 저들의 참패를 만회하고 두들겨 맞는 신세에서도 벗어나 보자는 것”이라며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국, 인권불모지인 미국은 원래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논의할 자격조차 없다”고 주장함.

###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7. 1. 20.

■ **정부, 올해 첫 북한인권정책협의회 개최(연합뉴스)**

- 정부는 20일 올해 첫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열고 북한 인권증진 방안을 논의함.
-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형석 통일부 차관이 주재한 제3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에 대해 “(북한 인권 관련) 2017년도 연두 업무보고 후속조치 방향 등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였다”고 밝힘.
- 북한인권정책협의회는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부처 간 협의를 위해 통일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등 북한 인권 관련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여하는 회의로 지난해 10월 구성됨.

###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7. 1. 18.

■ **납북자단체, 유엔북인권사무소에 납북자 면담 청원(연합뉴스)**

- 국내의 납북자 관련 단체가 납북 가족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유엔에 제출함.
-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18일 연합뉴스에 “북한에 납치된 우리 국민 가운데 생존해 평양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21명의 명단과 이들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17일 서울 종로의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시나폴슨 소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힘.

- 이 단체는 2011년 북한 당국이 작성한 평양시민 신상 자료를 통해 전후 북한에 납치된 516명 중 21명이 생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2017. 1. 19.

#### ■ 캐나다 입국 탈북자 지난 3년 간 ‘세 명’(자유아시아방송)

- 캐나다 이민난민국(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IRB)의 최신 난민 입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말까지 캐나다에 난민지위를 받고 입국한 탈북 난민은 단 한 명도 없었음.
- 캐나다 이민난민국은 지난해 12월 난민호소부(Refugee Appeal Division)가 지난해 여름 판시한 ‘북한 사람은 한국민’이라는 판결(Decision TB4-05778, June 27th, 2016)을 난민보호부(Refugee Protection Division)와 난민호소부의 탈북자에 대한 난민 지위 심사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공고(Notice of release of Jurisprudential Guide: DPRK) 를 발표함. 난민 심사관이 이러한 기준에 어긋나는 판결을 내릴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임.
- 이와 관련해 캐나다의 잭 김 변호사는 한국에 먼저 정착한 후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한다면 수용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함.

## 5. 대북지원

2017. 1. 14.

#### ■ 유니세프, 올해 대북 인도적 지원에 194억원 필요(연합뉴스)

-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이 올해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에 1천650만 달러(약 194억 원)가 필요하다고 밝힘.
- 유니세프는 최근 공개한 ‘2017 인도주의 활동 보고서’(UNICEF Humanitarian Action for Children)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4일 보도함.
- 올해 책정된 금액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영양지원 사업으로, 7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유니세프는 전함. 또 보건 사업에 600만 달러, 식수 위생 사업에 350만 달러를 투입해야 한다고 밝힘.

2017. 1. 16.

■ **北 수해복구 지원금도 안모인다..국제적십자, 모금목표 절반↓(연합뉴스)**

- 국제적십자사는 지난해 8월 북한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 피해 지원금 모금이 잘되지 않아 각국에 대한 분담요청액을 절반으로 줄였다고 교도통신이 16일 전함.
- 통신에 따르면 국제적십자사 적신월사연맹(IFRC)은 지난 5일 각국에 요청한 북한 홍수 지원금 분담액을 742만 스위스 프랑(약 86억6천745만원)으로 조정해 재차 지원을 요청함.
- 적십자사의 이런 조치는 북한의 지난해 핵 실험 및 미사일 발사로 유엔을 중심으로 한 제재가 강화되며 각국이 북한의 홍수 피해에 소극적으로 변해 실제 모금액이 당초 요청액의 25%가량에 불과했기 때문임.

■ **아일랜드 NGO, 올해 125만 달러 규모 대북 지원(미국의소리)**

- 아일랜드의 비정부기구 '컨선 월드와이드'는 올해 120만 유로, 미화 125만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힘.
- 컨선 월드와이드는 1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 예산으로 황해남북도와 평안남도, 강원도에서 식량안보 사업과 식수, 위생 사업, 재난위험 감소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
- 식량안보 사업은 보존농법을 전수해 간단한 농기구와 적은 자원으로도 지속적으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2017. 1. 17.

■ **WFP, 매일 2회 식량분배감시로 투명성 강화(자유아시아방송)**

- 세계식량계획은 최근 발표한 북한 국가보고서에서 지난달 북한에서 취약계층 약 68만 명에게 2천 952톤의 영양 강화 식품을 제공했다고 밝힘.
- 유엔의 식량구호기구는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영양강화식품이 전달되도록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하루 2회 풀인 총 59회의 현장 감시활동을 했다고 덧붙임. 세계식량계획은 최근 대북지원 식품 중 일부가 장마당에서 헐값에 팔리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답변해 있음.
- 북한 당국의 공공배급식량은 2016년 중 가장 많은 주민 한 명당 하루 400g이었지만 여전히 권장 기준의 2/3수준이었다고 세계식량계획은 지적함. 북한 당국의 식량배급

은 지난해 1월에서 3월까지의 성인 1명 당 하루 370g, 4월에서 6월까지의 하루 360g 그리고 7월부터 9월까지의 300g 수준으로 떨어지며 최근 5년 중 가장 적었음. 또 10월과 11월에는 380g으로 증가했으며 2016년 마지막 달인 12월엔 이보다 20g 증가한 1인당 하루 평균 400g의 식량이 공공배급체계 대상 북한 주민에 배급됨.

## 2017. 1. 18.

### ■ 유진벨재단 결핵약 대북지원 승인...내달 반출(연합뉴스)

- 통일부가 북한에서 다제내성결핵(MDR-TB·중증결핵) 치료사업을 하는 민간단체인 유진벨재단이 신청한 결핵약 대북지원을 승인함.
-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어제(17일) 유진벨재단이 신청한 결핵치료 의약품 대북 반출을 승인했다”며 “(유진벨재단이 평양에) 의료시설을 짓기 위해 신청한 건설자재 대북 반출 신청은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힘.
- 통일부의 이번 대북 인도적 지원 승인은 올해 들어 처음임.

## 2017. 1. 19.

### ■ 월드비전, 올해 140만 달러 대북 지원 계획(미국의소리)

- 월드비전의 랜덜 스페도니 대북사업 담당관은 올해 140만 달러 예산으로 북한에서 영양과 식수 지원 사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힘.
- 스페도니 담당관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올해도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과 깨끗한 물을 지원하는 사업을 중점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함.
- 월드비전은 지난해 함경북도 수해에 대응해 식량과 담요 등 3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했으며, 올해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해 평안도에 구호품을 비축할 계획이라고 밝힘.